



인도(Officiator)1,2,3부: 김재열 담임목사

|                            |  |  |  |
|----------------------------|--|--|--|
|                            | <b>1부 예배</b><br>7:00 am                                  | <b>2부 예배</b><br>9:00 am                          | <b>3부 예배</b><br>11:00 am               |
| •경배와 찬양<br>Praise          | 찬송가 Hymn<br>44,46장                                       | Rejoice<br>찬양팀                                   | Rejoice<br>찬양팀                         |
| •예배의 부름<br>Call to Worship | 인도자<br>Officiator  |  |  |
| 대표 기도<br>Prayer            | 인도자<br>Officiator  | 민제기 장로<br>Elder J. MIN                           | 피터송 장로<br>Elder P. SONG                |
| 봉 헌<br>Offering            | 찬송가 Hymn<br>50장  |  |  |
| 찬 양<br>Anthem              | -  | 엘리야중창단<br>Elijah Choir                           | 찬양대<br>Choir                           |
| 광 고<br>Announcement        | 인도자<br>Officiator  |  |  |
| 성경 봉독<br>Scripture Reading | 이사야 Isaiah<br>55:1-3                                     | 2부   | 시편 Psalms 71:1~24                      |
|                            |  | 3부   | 행 Acts 20:22~24<br>요 John 1:1~18       |
| 설 교<br>Sermon              | 하나님의 음성이<br>잘 들리십니까?<br>Do you hear<br>God's voice well? | 2부   | 끝까지 완주하라!<br>Race to the end!          |
|                            |  | 3부   | 영생을 가졌는가?<br>Do You Have Eternal Life? |
|                            | 김재열 목사<br>Rev. Jaeyeol KIM                               | 다니엘 김 목사<br>Rev. Daniel KIM                      |  |
| •찬 송<br>Praise             | 찬송가 Hymn<br>205장   | 찬송가 Hymn<br>171장- 하나님의 독생자<br>(Because he lives) |  |
| •축 도<br>Benediction        | 김재열 목사<br>Rev. Jaeyeol KIM                               | 다니엘 김 목사<br>Rev. Daniel KIM                      |  |

•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찬송은 4부로 (Chorus by Parts)

다음주 기도 2) 이성주 장로 3) 서명환 장로

영어 예배 (English Service) 9:00am/11:00am, EM예배실

|                    |                                     |   |
|--------------------|-------------------------------------|---|
| 어머니 비전기도회 10:00 am |                                     | 저녁 기도회 8:00 pm                          |
| 기도 Prayer          | 한마음 한뜻으로                            | 강태우 집사 (다음주: 최기욱 권사)                    |
| 말씀 Sermon          | 꿈을 수 없는 사랑<br>(롬 8:35-38)<br>조영찬 목사 | 사데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br>(계 3:1-6)<br>박준영 목사 |

담임목사 (월-토) 5:30 am

| 요일   | 성경본문   | 찬송가 | 기도자 | 주 제            |
|------|--|-----|-----|----------------|
| 월(3) | 히 2:10-3:6                                   | 139 | 김아영 | 신실하신 대제사장      |
| 화(4) | 히 3:7-19                                     | 359 | 윤창권 |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
| 수(5) | 히 4:1-13                                     | 347 | 유성열 | 안식할 때가 남아 있으니  |
| 목(6) | 히 4:14-5:10                                  | 91  | 최영식 |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
| 금(7) | 히 5:11-6:8                                   | 449 | 한상준 |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    |
| 토(8) | 히 6:9-20                                     | 546 | 박남숙 |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
| 주(9) | 경건한 마음으로 개인 묵상 (히 7:1-10)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 |     |     |                |

| 일 시              | 내 용                       |
|------------------|---------------------------|
| 5.30(목) - 6.2(일) | 선교대회                      |
| 6.7(금)           | AWANA 중강                  |
| 6.7(금) - 6.8(토)  | Purity Seminar(Kathy 전도사) |
| 6.9(일)           | 성령강림주일 / 선교회주일            |
| 6.12(수)          | 어머니비전기도회 상반기 중강           |

| 예배    | 5월 안내 위원                     | 5월 헌금 위원                      | 주차 위원 |
|-------|------------------------------|-------------------------------|-------|
| 1부    | 김광호                          | 헌금함                           |       |
| 2부    | 박덕수 이재량                      | 이근자 박남숙<br>서경희 최선주            | 이정호   |
| 3부    | 박요한 서명환                      | 조동성 문재인<br>유성열 이은정<br>유지연 김은영 | 이정호   |
| 주방 봉사 | 이번 주 (6월 2일)<br>다음 주 (6월 9일) | 전도사역원 서명환<br>양육사역원 이재량        |       |

##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을 받으라!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어디에서 왔을까?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네가지 기질을 주장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조금씩 다양하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근세에 와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혈액형이 곧 성격이라고 믿고 있다. 난 사춘기 시절부터 성실하다고는 하는데 소극적이며 다투기를 싫어한다는 A형 기질을 나의 속명처럼 받아드리고 살아왔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 상실증 환자처럼 포기했고 홀로 있기를 좋아했고 우울하고 비사교적이고 소극적으로 살던 끝에 결국은 폐결핵 중증 환자가 되었다고 믿으며 체념하고 살았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 나가는 중증 환자들 속에 18세의 어린 소년도 섞여 있었다. 본능적인 생의 욕구적 몸부림 속에서 생명의 공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날 이후 나의 혈액형은 A형이 아닌 J형으로 바뀌었다. 못난 나의 성격, 기질, 능력, 건강, 환경... 모두가 다 J형으로 바뀌고 말았다. 소극적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A형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리고 그 날 이후에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었다.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준엄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또 마셨다. 내 영혼의 심장에 J형피가 차고 넘치도록 마셨다. 그 날 이후로 때때로 옛 사람의 A형 기질이 나타나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말씀이 나를 쳐 복종시켰다. '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리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다. 너는 못해도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 큰 소리 치셨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 시간을 끌어안고 기다릴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눈 앞에 가능으로 나타나곤 했다. 어쩌면 이룰 수가 있을까? 본래적인 나는 포기의 명수였는데... 나의 옛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여 결코 일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나 용두사미 인생을 살아 왔는데... 그런데 J형이 된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안되는 일도, 못하는 일도 나에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는 평생 남들과 싸움은 커녕 시비조차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던 내가 J형으로 바뀐 후에는 노회에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싸움(?)을 서슴치 않았다. 도대체 이런 엉뚱한 용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안다! A형 기질이 아닌 J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중에 아직도 자신의 타고난 혈액형, 성격이나 기질론에 갇혀 속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다! 결코 그게 속설임을 알아야 한다! 일관성쌍둥이들이 대부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속명론의 속설들을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 심장에 십자가의 보혈 J형으로 수혈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삼창을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속명론, 혈액형, 기질론, 어쩔 수 없다는 타고난 성격들을 당장 못 박아 버리고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을 받으라! 누구든지 J형의 보혈로 가득하게 채우라! 그리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의 기질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2019.5.28)

교우 사업체  
안 내

의료(통증병원) - 오영수  
212-575-0555